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5호
풍림산업주식회사



현장 안전인의 기둥이 되고파

7월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뜻깊은 달이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온통 안전보건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풍림산업(주)본사 안전환경팀의 이상규 과장을 찾았다.

이상규 과장은 안전업무를 수행한지 올해가 10년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을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안전업무를 수행할 당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소장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무지에 가까워 안전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안전관리자는 업무의 권한과 현장 소장의 지원이 없이는 안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당시가 그런 환경이었다고 회상한다.

현장에서 신바람나는 안전활동을 하려면 안전관리비의 사용 권한이 안전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등 안전관리자가 신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안전인은 나름대로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면과 공중표를 이해하고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중에 있어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규 과장도 처음 현장에 배치 되었을 때 도면과 공중을 이해 못해 업무수행시 어려움이 있어 기술자가 계획 수립한 공중표와 도면을 스스로 공부하는 등 자신의 개발을 위해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이상규 과장은 형식적(시각적)인 안전활동도 강조한다. 형식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안전의 기본인 정리·정돈 또한 보이는 안전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최근 안전인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이 과장은 풍림산업 전현장의 안전인이 마음들 곳은 본사 밖에 없다며, 동료 안전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부에 있는 나 자신과 팀전원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업무에 임한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에는 안전실무지침을 표준화하여 전 현장에 공포하였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업무의 표준화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이 과장은 안전의 미래가 될 예비 안전인 후배들에게 “안전은 접근하기는 쉽지만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면 도태될 수 있으므로, 안전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자기의 개발에 손을 놓아서는 안됩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회사 전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마음 들 곳은 본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본사팀은 마음의 기둥이 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